

중남미 14개국과 농업기술 협력 방안 모색

농촌진흥청, '제5차 한-중남미 농식품기술협력협약체 총회' 개최... 협력 성과 공유·신규 협력 과제 선정

농촌진흥청은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파라과이 아순시온 힐튼 가든 인 호텔에서 '제5차 한-중남미 농식품기술협력협약체(KoLFACI) 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KoLFACI 총회는 의장국 주최로 3년마다 열리는 국제회의로, 회원국 간 농업기술 협력 성과를 공유하고 지역 현안 해결과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번 총회에는 중남미 14개 회원국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총회는 공동의장인 파라과이 농업연구기구(IPTA) 에드가 에스체테 청장의 개회 선언으로 시작됐으며, 카를로스 알시비아데스 히메네스 디아스 파라과이 농축산부(MAG) 장관과 신현욱 주파라과이 대사대리 등이 참석해 축하 인사를 전했다.

카를로스 알시비아데스 히메네스 디아스 장관은 "기후변화 대응과 디지털



농촌진흥청은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파라과이 아순시온 힐튼 가든 인 호텔에서 '제5차 한-중남미 농식품기술협력협약체(KoLFACI) 총회'를 개최했다.

농업 전환 등 당면 과제를 해결하고 사회 개척국 및 시기 결정, 신규 협력 과제의 소독 증진을 이루기 위해서는 중남미 국가 간 협력이 중요하다"며 다자 간 기술 협력을 추진해 온 KoLFACI의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회의에서는 차기 의장단 선출과 총

회 개회국 및 시기 결정, 신규 협력 과제 선정 등이 논의됐다. 그 결과 페루와 콜롬비아가 각각 차기 의장국과 부의장국으로 선출됐으며, 다음 총회는 2029년 페루에서 열릴 예정이다. 또한 파라과이에서 추진된 KoLFACI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중남미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신규 협력 과제로 식량안보, 기후변화 대응, 디지털 농업 등 3개 분야를 선정해 2027년부터 추진하기로 했다.

KoLFACI는 농촌진흥청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하나로 중남미 지역 공통의 농업 문제 해결과 소농 생활 개선을 목표로 다년간 농업기술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14개 회원국이 참여해 16개 공동 연구 과제를 완료했거나 진행 중이다.

최광호 농촌진흥청 기술협력국장은 "이번 KoLFACI 총회는 중남미 농업 발전에 기여해 온 우리나라 농업기술 협력의 성과와 의미를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기후변화 대응과 디지털 농업기술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과 식량안보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미르찰', 재배면적 급증

농촌진흥청 개발 가공용 다수성 찰벼, 소비 확대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가공용 다수성 찰벼 '미르찰'의 소비가 늘면서 전국 재배면적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가공용 쌀 산업 활성화를 목표로 개발된 '미르찰'이 높은 생산성과 우수한 가공 적성을 바탕으로 농가와 가공업체의 관심을 끌며 재배면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르찰'은 국립식량과학원이 개발한 찰벼 품종으로 일반 찰벼보다 생산량이 많고 가공 특성이 뛰어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쌀가루 가공에 적합해 제과와 한과 등 다양한 식품 산업에서 활용 가능성이 높은 품종으로 평가받고 있다.

실제 수확량은 농가에서 많이 재배하는 '동진찰'보다 약 25%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 익산 지역 농가 기준으로 10아르(a)당 수확량은 '미르찰'이 648kg으로 '동진찰'의 518kg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또한 찰쌀가루 입자가 미세하고 물성이 안정적이어서 유과 등 한과 가공 시 수율이 높다는 평가



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장점으로 '미르찰' 재배면적은 보급 초기인 2020년 19헥타르에서 2021년 271헥타르, 2022년 596헥타르로 빠르게 늘었고 최근에는 약 660헥타르 수준까지 확대됐다. 가공용 벼 품종 가운데서도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전북과 충남,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재배단지가 형성되고 있으며 가공용 원료곡 수요 증가와 계약재배 확대가 재배면적 증가를 이끌고 있다. 현장에서는 기존 찰벼 품종보다 높은 수량성이 농가 경영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된다.

/오상근 기자

바이오헬스 클러스터 가동·스타트업 지원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지역센터 지원사업 협약식·포럼 개최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은 11일 전주 더메이호텔에서 '2026년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 지원사업 협약식 및 바이오 스타트업 인사이트 포럼'을 개최했다.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역 바이오헬스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병원과 협력해 기술사회화를 지원하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경진원은 지난해 전국 6개 주관기관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은 11일 전주 더메이호텔에서 '2026년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 지원사업 협약식 및 바이오 스타트업 인사이트 포럼'을 개최했다.

가운데 하나로 선정됐으며 올해 2년 차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경진원은 지난 2월 말 바이오 스타

트업 20개사를 선정했으며, 이번 행사에서는 해당 기업들과의 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사업 추진 방향을 공유했

다. 행사에는 지원사업 참여기업들 비롯해 전북대학교병원과 원광대학교병원 등 유관기관 관계자 약 40명이 참석했다.

포럼에서는 큐제네틱스 김지완 전무 이사가 바이오 스타트업 스케일업 전략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강연에서는 바이오 기업 투자 유치 전략과 정부 지원사업 활용 로드맵, 글로벌 진출 및 인허가 절차, 임상·실증 지원 과정 등 바이오 스타트업이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실무 중심 내용이 소개됐다.

윤여봉 원장은 "전북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는 올해 2년 차를 맞아 바이오 헬스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과 실증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국민연금공단은 11일 공단 본부 연금홀에서 이사장 직속 조직인 'NPS 인공지능전략위원회' 출범식과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직속 '인공지능전략위원회' 출범

국민연금공단은 11일 공단 본부 연금홀에서 이사장 직속 조직인 'NPS 인공지능전략위원회' 출범식과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전략위원회는 위원장인 이사장을 포함해 외부위원 3명 등 총 21명으로 구성되며, 공단의 인공지능 중장기 계획과 주요 사업을 심의·의결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운영된다. 또한 인공지능 관련 부서 간 업무를 조정하고 정책 이행 점검과 성과 관리까지 총괄하는 역할을 맡는다.

위원회 산하에는 전략경영, 인력양성, 데이터, 연구·개발, 윤리·보안 등 5개 분과위원회가 설치된다. 각 분과위원회는 인공지능 사업 전략을 세

부적으로 검토하고 실행함으로써 공단의 인공지능 전략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출범식과 첫 회의에서는 외부위원과 분과위원장 위촉장 수여를 비롯해 국민연금 인공지능 윤리현장 선언, 인공지능 기본계획 보고 등이 진행됐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번 전략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업무 혁신 환경을 조성하고 조직 운영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한 행정절차와 서비스를 개선해 국민이 별도로 요청하지 않아도 필요한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오상근 기자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제품, 고속도로 휴게소 입점 지원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 11일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주)한남상사와 함께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제품의 판로 확대와 지역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우수한 제품력을 갖추고도 유통망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벤처·청년 식품 창업기업의 제품을 고속도로 휴게소 유통망과 연계해 판매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전북 익산에 조

성된 국내 유일의 식품 전문 산업단지다. 현재 일반기업 105개, 청년식품창업센터 20개, 벤처센터 37개 등 총 162개 기업이 입주해 있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제품의 고속도로 휴게소 입점 지원을 비롯해 지역 우수 식품 홍보와 시식·판매 행사 공동 추진, 휴게소 기반 공동 마케팅 및 지역 상생 프로그램 운영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오상근 기자

전북환경청,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에 국비 51억원 지원

전북지방환경청은 자연재난에 대비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와 7개 기초지자체의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에 국비 51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하천법에 따라 국가하천을 관리하는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을 고려한 조치로, 전북지방환경청은 환경강과 동진강 수계를 관리하는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시·군산시·익산시·김제시·정읍시·완주군·부안군 등 7개 시·군에 매년 국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된 예산은 국가하천 시설물 점검과 보수에 활용돼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하천 이용 환경을 개선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또한 하도 정비와 지장 수목 제거 등 재해 예방 사업에도 투입된다.

전북지방환경청은 이번 사업을 통해 치수 안정성을 확보하고 친수·생태 공간 기능을 유지·강화해 지역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하천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오상근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